

중동의 민족현황과 민족문제

김용찬(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영국 주제)

중동지역(Middle East)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 그룹으로 대별되는 국가 군에 속한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첫째, 아라비아 반도의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을 포함한다. 둘째, 이른바 '핵심' 중동지역으로 지칭되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Fertile Crescent Region)의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중동지역에 속한다. 셋째,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가 이 지역에 포괄된다. 넷째, 비 아랍국가들로 터키와 이란이 또한 중동지역에 속한 국가로 분류된다. 다섯째, 코모로, 지부티, 모리타니, 소말리아, 수단 등의 사하라 남부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 국가들은 아랍국가연맹(the League of Arab States)에 속한 국가들이다.¹⁾

중동지역에서는 아랍민족이 전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는 이슬람 수니파가 대다수이며, 인종적 전통은 셈-함 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숫자적으로도 상당수인 여러 소수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종교, 언어, 인종의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크고 작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슬람 소수파인 시아파가 존재하고, 기독교와 유대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소수 종교들도 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각 소수민족과 부족들의 언어들이 아랍어와 공존, 대립하고 있다. 인종적인 측면에서는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민족들이 중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국가들 내의 대표적인 소수민족들로는 쿠르드족과 팔레스타인 인이며, 초국경적인 민족집단들로는 베르베르족과 아르메니아인, 시르카시아 인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적은 수로 존재하지만 국가 내에서 민족문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민족들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중동지역의 전체적인 민족현황을 살펴보고, 주력민족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쿠르드족과 같은 소수민족 문제의 형성 원인과 최근 사태의 진행과정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주력민족과 협력관계에 있거나 동화되어 별다른 분규나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하고 있는 소수민족들 또한 다루고자 한다.

중동지역의 민족현황

아라비아 반도	
바레인	바레인인 63%, 아시아인 19%, 아랍인 10%, 이란인 8%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인 90%, 아프리카-아시아인 10%
아랍에미리트	에미리트인 19%, 아랍인과 이란인 23%, 남아시아인 50%
예멘	아랍인
오만	아랍인, 발루치인, 남아시아인
카타르	아랍인 40%, 파키스탄인 18%, 인도인 18%, 이란인 10%
쿠웨이트	쿠웨이트인 45%, 아랍인 35%, 남아시아인 9%, 이란인 4%
'핵심' 중동지역	
레바논	아랍인 95%, 아르메니아인 4%
시리아	아랍인 90.3%, 쿠르드족, 아르메니아인 그리고 기타 9.7%
요르단	아랍인 98%, 시르카시아인 1%, 아르메니아인 1%
이스라엘	유대인 80.1%(유럽미국태생 32.1%, 이스라엘 태생 20.8%, 아프리카 태생 14.6%, 아시아 태생 12.6%), 비유대인 19.9%(대부분 아랍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팔레스타인인 99.4%, 유대인 0.6%), West Bank (팔레스타인인 83%, 유대인 17%)
북아프리카	
리비아	아랍-베르베르인 97%
모로코	아랍-베르베르인 99.1%, 유대인 0.2%
알제리	아랍-베르베르인 99%
튀니지	아랍인 98%, 유럽인 1%
비아랍국가	
이란	페르시아인 51%, 아제리인 24%, 길라키와인 마잔다라인 8%, 쿠르드족 7%, 아랍인 3%, 루족 2%, 발록족 2%, 투르크멘 2%
터키	터키인 80%, 쿠르드족 20%
사하라 남부	
모리타니	모리타니흑인 40%, 모리타니인 30%, 흑인 30%
소말리아	소말리아인 85%, 반투인 과 비소말리아인 15%
수단	흑인 52%, 아랍인 39%, 베야인 6%
지부티	소말리아인 60%, 아파르인 35%
코모로	안타로테, 카프레, 마코아 등 소수 종족

출처: 미국 CIA FACTBOOK 2002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fields/2075.html>,
검색일: 2003년 1월 28일)

중동지역에서는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거나 갈등을 빚으면서 생활해오고 있다. 주력민족은 이슬람을 믿으며 아랍어를 구사하는 아랍민족들로 개별민족국가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각국 내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주력민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여기서는 동질성이 아주 강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소수민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민족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중동지역에서 주요 소수민족의 특징과 최근 현황 및 갈등과 분규에 대해서는 이 글의 다음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요르단의 시르카시아 인은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하며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융화되어 별다른 민족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다. 전체적인 권리와 의무에서도 동등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지에는 이란계통 무슬림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시아파로서 종교적인 차이로 수니파와 상호 결혼 등에서의 기피정도 등의 사소한 문제들이 존재할 뿐이지 정치, 경제적으로 갈등이나 분규 없이 생활하고 있다. 알제리에는 전체인구의 약 22%를 차지하는 베르베르족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사막지역과 산악고지대에 살고 있으며 자신들의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을 뿐 종교적으로는 아랍민족과 동일하고, 상당수가 아랍민족과 동일한 사회정치적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 알제리의 아랍민족과 베르베르인은 식민지 시절에도 프랑스에 공동으로 저항하는 등 공존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바레인, 시리아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국가 내에 존재하고 있다. 바레인의 경우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종교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이란 계가 소수민족으로 생활해왔다. 이러한 종교차이는 바레인이 외부국가의 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을 야기해왔지만, 커다란 내부적인 민족분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시리아도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민족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고 있어서 별다른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 않다.

모로코의 경우 전체 인구의 33%정도가 베르베르 인이다. 모로코의 베르베르 인은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면서 생활해왔다. 그럼에도 이들 베르베르 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여 아랍인들과 종교적 동질성을 가짐으로써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기원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공동으로 저항했던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모로코 내에서 아랍인들과 베르베르 인들의 협력관계는 모로코 왕정이 베르베르 인들을 각종 공안기관에 기용하는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위의 도표에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수단과 모리타니아에는 간지아 족이 존재한다. 수단에서 간지아 족은 흑인의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주력민족인 아랍민족과 달리 남부지역에 집단거주하고 있으며 낮은 경제, 사회적 지위에 처해있으면서 아랍민족과는 특별히 공유하는 것이 없이 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수단에서 영국의 식민지 기간 동안 시행된 분리정책에 영향을 받아 더욱 증폭되어 국가 내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반면 모리타니아의 간지아 족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아랍어도 사용하면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²⁾

중동지역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남 아시아인들이다. 이들 남 아시아인들은 전체 인구 대비 아랍에미리트 50%, 카타르 36%, 바레인 19%로 각 개별국가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지에도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거주지역이 주로 아라비아반도 국가인 점을 고려해보면 이 지역 석유산업의 성장과 함께 노동력의 필요가 대두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인 남 아시아인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으며, 국내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던 인도와 파키스탄 인들이 대거 이주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 남 아시아인들에 대한 연구는 중동지역 연구에서 등한시 되어왔기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이들의 조직화와 주력민족과의 관계 설정 등에 영향을 받아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의 민족문제와 소수민족

1. 팔레스타인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의 시작과 경과에 대한 부분은 이미 '민족연구' 전호들에서 상당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근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이스라엘의 대응을 언급하고 팔레스타인인에 관한 문제에서 주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의 지원 하에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서의 이주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독립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건국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크나큰 재앙이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분규의 원인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1940년대에 영국과 미국, 유대인들의 단순한 외교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대인들은 이미 1930년 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18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후 히틀러의 유대인에 대한 말살 정책에 영향을 받아 경제적인 상황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단행했다. 1932년과 1936년 사이에 2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왔으며, 당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게 되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시기에는 65만의 유대인이 거주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확실한 주력민족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도 80만에 달하는 러시아 지역 거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왔다.³⁾

이러한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국 이후에 집중된 측면이 강하지만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접촉은 유지되어왔으며, 이스라엘의 건국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고용과 같은 경제적 조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감수해야만 했다. 건국 이후 이스라엘 이주민들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아랍국가와의 전쟁이 중요하게 역할을 해왔다.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의 독특한 형태인 시온주의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유대민족국가의 강화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정당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

한 시온주의는 세계 각국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의 이질감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아랍국가와의 전쟁은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팔레스타인인과 비유대인들에 대한 지배와 분리 전략(divide-and-rule)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비유대인을 민족별로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정책을 전개하면서 아랍민족 정체성의 약화와 시민권의 차별화를 추구했다. 즉 아랍인(Arabs), 베두인(Beduin)⁴⁾, 드루즈인(Druze), 시르카시아인(Circassians)의 4개 민족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민족집단은 아랍인들로 사실상 이들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해 투쟁해 온 것이다.⁵⁾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드루즈 인이나 시르카시아 인들과 달리 아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저항해왔기 때문에 동화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줄기찬 저항은 이스라엘에 대해 정당성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이외에 주변 아랍국가들의 지원과 자신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1993년 미국의 중재에 의해 이루어진 팔레스타인 자치 확대에 관한 원칙 선언은 기존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였다. 이후 1995년 자치 확대 협정의 체결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순탄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후 몇 가지 건전을 보인 측면이 있으나 팔레스타인의 궁극적인 독립에 대한 부분과 예루살렘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들이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답보를 계속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0년 9월부터 재개된 팔레스타인인들의 독립요구 저항운동과 이스라엘의 강경한 사론 정권의 수립이 맞물리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으로 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민족집단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와 West Bank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인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지배를 피해 주변국가에 난민신분으로 이주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생활과 지위도 현재 중동지역에서 점차 중요한 이주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레바논에는 이스라엘 건국 후 팔레스타인인들의 난민 캠프가 건설되어졌고 다수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영향력 없이 생활해 오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오랜 갈등으로 이들은 복귀의 미래를 상상할 희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 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상실되어가고 있고, 여러 상황적인 차이로 인해 내부적인 균열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이 곳에는 1950년대 이전에 팔레스타인인 난민 캠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69년 레바논 정부와 PLO사이의 협정을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이 고용될 수 있는 권리와 캠프 안에서의 지역위원회의 설립, 무장투쟁의 참여 보장 등이 허용되어졌다.

당시 난민으로 규정된 팔레스타인인들은 '난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을 희망했다. 이유는 우선 난민으로서 생활상의 보장을 받는 측면과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합법적인 지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2년 이후 레바논 정부의 결정으로 외국인의 취업 직종이 제한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인들도 같은 제제를 받게 되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직종에도 시리아 인들과 비아랍 계 외국인들이 선호되면서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이 악화되었다. 캠프의 확장 제한과 감시, 이동의 자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공격과 멸시 등이 상황을 악화시켰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조직화 할 수 있는 권리도 거부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4년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조직들은 정부에 시민의 권리(civil rights)⁶⁾를 보장해달라는 요구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레바논 정부는 무 대응으로 일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실 속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상당수가 1990년대 초반부터 레바논으로의 귀화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레바논으로 귀화한 팔레스타인인은 6만 명을 상회하는 숫자였다. 이러한 귀화자의 증가는 팔레스타인인 내부의 분열을 가져왔다. 레바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의 적개심이 증대되고, 배신의 징표로 국적취득이 인식되어졌다.⁷⁾

팔레스타인인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분리와 독립, 자치를 위한 투쟁과 이스라엘의 탄압의 문제로 단순히 국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난민의 지위로 살고 있는- 특히 중동지역에서-팔레스타인인들의 지위와 생활문제까지 포함되어져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서유럽국가에서 난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지위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중동지역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랍국가에서 난민으로 생활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쿠르드족

팔레스타인 지역 분쟁과 함께 중동지역에서 대표적인 민족문제 중의 하나가 쿠르드족 문제이다. 현재 쿠르드족은 터키에 천만 명, 이라크 북부 지역에 300만 명, 이란에 500만 명, 시리아와 구소련 지역 아르메니아에도 쿠르드족들이 거주한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에 난민의 자격으로 체류하는 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23년 로잔조약에 의해 쿠르드족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역인 쿠르디스탄 지역이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5개국으로 분할되면서 각 국가내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 2천만이 넘는 쿠르드인들이 각국의 소수민족으로 편입되었으며, 이들은 민족정체성을 위협받게 되었고 주력민족의 동화 대상이 되었다. 이후 이들은 생존권과 자치의 요구를 지속해오고 있으나 외부의 지원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터키나 이란 등지에서는 민족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저항하는 쿠르드족의 대응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라크 지역 쿠르드족들은 1991년 걸프전 이후 반 후세인 세력의 가능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되어 세계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쿠르드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⁸⁾

이라크 북부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은 3백 7십만 정도이고 이라크 남부에도 백만에서 2백만 사이의 쿠르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수니 무슬림들이다. 이들은 다른 국가의 쿠르드족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문화적 탄압과 민족학살(ethnic cleansing) 등을 당해왔다. 1988년 자행된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은 쿠르드족의 저항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것으로 간혹한 만행들이 저질러졌다. 당시 1,200개 마을이 공격받았고 18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그러나 1991년 4월 쿠르드족의 저항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688에 의한 11개국의 군사 작전을 통해 이라크 북부에 쿠르드족의 안전지대가 수립되었다. 이 지역은 기존 쿠르드 거주 지역의 약 절반에 가까운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후 이라크 정부도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통제권을 철수하고 자치를 사실상 인정했다. 1992년 5월 선거를 통해 쿠르드 지역 의회와 정부를 수립했다. 현재 이 지역은 이라크 난민들의 귀환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1991년 이래로 수천 명의 이라크인 난민들이 돌아 온 것과 함께 미국과 유럽국가로 망명했던 이라크 인들도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⁹⁾

터키에서의 쿠르드족 민족주의는 네 단계의 중요한 변화를 겪어왔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사이에는 몇 차례의 봉기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Shaikh Said와 Dersim 등의 저항이 있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는 저항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든 시기였다. 세 번째 단계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쿠르드족민족주의자들의 활동에 의해 저항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많은 정치조직들이 결성되고 참여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이들 조직들이 점차 급진화 되었다. 1980년 터키에서의 쿠데타 이후 쿠르드족 민족운동의 주도권은 PKK(쿠르드 노동자당)에 의해 장악되었다. PKK에 의해 주도된 저항운동은 지속적인 무장투쟁의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9년 지도자 오갈란의 체포 이후 이들의 저항운동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¹⁰⁾

PKK는 1984년의 무장투쟁을 기점으로 쿠르드족들에게 점차 지지를 확보해갔다. 이 조직은 과거와 달리 조직적인 구조와 쿠르드족을 터키 내외에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유럽지역 쿠르드족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급진적인 조직과 활동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터키의 쿠데타에 의한 권위주의 정부의 수립이었다. 당시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과 같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이 표출되는 것에 대해 극단적인 봉쇄정책을 전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강한 반발을 사게 되었던 것이다.¹¹⁾

1984년부터 1999년까지의 지속적인 무장투쟁의 결과 3만여 명의 쿠르드족이 죽고 38만 명이 자신의 거주지를 옮겨야 했으며 3백만 명의 쿠르드족이 터키 서부와 유럽의 서부로 이주했다. 결과적으로 PKK의 활동은 쿠르드족의 자각의식과 민족주의를 강화시켰지만 많은 쿠르드족의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난민의 지위나 무국적자의 지위로 전락되게 되는 쿠르드족이 양산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전쟁의 결과로 인한 사회 심리적 피해 또한 심각한 것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이종고를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무장투쟁은 또한 터키인의 민족주의¹²⁾를 자극해 쿠르드족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시켰다.¹³⁾

20세기 이전 시기와 달리 쿠르드족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는 종교적인 특징에 의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오다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계급적인 요소들이 중심적인 정체성의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는 자신들의 민족성이 민족정체성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다.¹⁴⁾

최근 들어 쿠르드족 내에서는 이라크 북부 자신들의 자치지역에 쿠르드 독립국가를 건설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족 자치지구는 서방국가의 지원을 통해 건설된 것으로 미국이나 유럽국가의 지원을 통한 독립국가의 건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터키와 이란 등 쿠르드족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독립국가의 건설이 단기간 내에 달성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 기타 소수민족

1) 아르메니아인

터키 내 아르메니아인들의 자치요구는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 정부의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강제이주와 학살에 대한 대응으로 이들은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터키 외교관에 대한 테러를 계속해 왔으며 자치를 요구해왔다. 1915년 4월 '아르메니아 대학살의 날'로 알려진 사건은 터키시민이었던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와 연합하여 반 터키전선을 형성하자 터키정부가 아르메니아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이후 아르메니아인들의 터키에 대한 반감의 중요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당시 아르메니아인들은 상당수가 구 소련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전체 인구도 20만 정도로 적은 수이고 터키 내에서 이미 언어, 종교, 문화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생활수준도 터키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어서 조직적인 분리, 독립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서 중심적인 민족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으며 최근에는 별다른 충돌도 없는 상태이다.¹⁵⁾

최근 중동지역의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했으며, 소수가 구 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아르메니아공화국으로 귀환했다. 이들은 주로 젊고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여서 중동지역 아르메니아인 공동체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 베르베르인

베르베르인들은 주로 북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며 자신들의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영유하고 있다. 베르베르인들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등지에 거주하는데 모로코와 알제리에서는 주로 산악지역과 사막지역에 거주하면서 독자적인 거주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각각 22%, 33%로 다른 국가의 소수 민족에 비해 적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커다란 민족분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한 모리타니아의 베르베르인들도 17세기 이후 아랍 화되어 아랍어를 받아들이는 등 아랍민족과 융합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아랍민족과 베르베르인의 융합으로 Al-bidan이라 불리는 하나의 민족그룹이 탄생했다. Al-bidan은 아랍인과 아랍화된 베르베르인을 일컫는 표현으로, 이들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¹⁶⁾

아랍민족과 베르베르인간의 갈등을 잠재우게 한 데는 이슬람 종교가 커다란 역할을 했다. 베르베르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언어, 문화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주력민족인

아랍민족에 협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식민지라는 역사적 경험이다. 베르베르 인들이 거주하는 국가들은 과거 프랑스 등의 식민지였고 이에 대한 저항운동을 아랍민족과 함께 전개함으로써 독립 이후 아랍인들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 드루즈 인

드루즈 인들은 이슬람교의 소수분파의 사람들로 시리아와 이스라엘 등지에 집단적으로 살고 있다. 이스라엘의 드루즈 인들은 이스라엘 건국 초기 '비 무슬림 아랍인'이나 '소수민족 중의 소수민족' 정도로 취급되었다. 1962년 이스라엘은 이들을 '비 아랍 인'들로 재 규정하고 소수민족으로 인정했다. 유대인들은 드루즈인들을 '선호되는 마이노리티'(favored minority)로 규정하면서 아랍 계 팔레스타인 인들과 달리 동화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골란고원 지역의 시리아인들-이들은 대부분이 드루즈 인들이다-에 대한 정책은 실패했다. 즉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드루즈 인들을 친 이스라엘 소수민족으로 만드는 정책의 일환으로 아랍인들에 대한 정책과는 상이한 정책을 전개했다.

드루즈 인들 중에서 제한적인 수가 1930년대 후반에 유대인과 협력했던 것이 이스라엘에서 '좋은 아랍인'(good Arabs)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상당수의 드루즈 인들은 1936년과 1939년 사이의 아랍의 봉기와 1948년과 1949년 반 이스라엘 전쟁에도 참여하는 등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이스라엘은 친 드루즈인 정책을 통해 드루즈 인들을 다른 아랍 계와 분리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개된 것이 교육과 군대장집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1976년에 단행된 것으로 이후 드루즈 인들은 다른 아랍인들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리는 대신에 이스라엘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다는 것은 비유대인으로서 유일하게 드루즈 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이다.

한편 골란고원에 거주하는 드루즈 인들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 드루즈 인들과 마찬가지로 친 이스라엘 적인 드루즈 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자신들을 시리아 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강하게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동화 및 통합 정책에 저항해왔다.¹⁷⁾

결론

중동지역은 전 세계에서 동유럽과 함께 다양한 민족문제와 심각한 민족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다. 언어와 종교, 인종적인 차이는 개별 민족국가의 국경을 넘어서는 민족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각종 테러와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외부 서방국가의 개입은 더욱 복잡한 정황을 연출하고 있다.

현재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민족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인과 쿠르드족에

관한 것이다. 이들 소수민족은 아직까지도 주력민족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분리, 독립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분리, 독립 이외에 주변국과 유럽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난민문제의 해결이라는 커다란 난제가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쿠르드족들은 서방의 지원을 통해 이라크 북부 지방에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터키와 이란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대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또한 쿠르드족 문제는 그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라크 정권의 항배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중동지역에서 가장 폭발력을 가진 민족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팔레스타인 난민문제와 쿠르드족 난민 문제는 이미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소수민족이 자치 혹은 독립의 길을 가기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차원의 해결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인이나 쿠르드 족과 같은 소수민족 중에서도 비교적 많은 인구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민족들에 대한 연구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 다른 소수민족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개괄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아라비아 반도의 아시안들-특히 남아시아인들-의 정착과 이들에 대한 정책에 관한 연구는 중동지역 민족문제 연구의 새로운 과제 중의 하나로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적은 수로 존재하면서 화와 순응의 과정을 통해 주력민족에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는 소수민족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1 Deborah J. Gerner,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Middle East*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 pp. 1-2.

2 이원삼, "아랍 소수민족 종파 분포도 연구", 『한국중동학논총』 제18호, 116-123쪽.

3 Calvin Goldschneider, *Cultures in Conflict: The Arab-Israel Conflict* (Westport: Greenwood, 2002), pp. 7-12.

4 베두인들은 유목민족으로서 오만제국과 영국의 지배, 이스라엘 정부 아래에서도 자신들의 전통과 부족적인 조직을 유지해왔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이었고, 이스라엘 정부도 이들에게 교육과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면서 동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이주의 제한에 대한 다소간의 불만은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 점차 정착민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변화시켰다. Jacob M. Landau, *The Arab Minority in Israel, 1967-1991: Political Aspec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56-57.

5 Lisa Hajjar, "Making Identity Policy: Israel's Interventions among the Druze," *Middle East Report*, July-September 1996, p. 2.

6 이러한 권리의 핵심적 요구 사항은 고용의 권리와 주거지역 캠프의 재건설, 팔레스타인인 문화조직 건설 등이 포함되어졌다.

7 Julie Peteet, "From Refugees to Minority: Palestinians in Post-War Lebanon," *Middle East Report*, July-September 1996, pp. 27-30.

8 이희수, "중동의 소수민족의 현황과 과제", 『한국중동학논총』 제18호, 96쪽.

- 9 Carole A. O'Leary, "the Kurds of Iraq: recent history, future prospects," *Middle East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 No. 4, pp. 17-19.
- 10 PKK의 전략적 목표는 시기적으로 변화해왔다. 통일된 쿠르드족의 독립에서 1990년대에는 터키 내에서의 자치의 요구로 전환한 것이다. 이것은 1990년대 후반 민주적인 수단에 의해 터키 내에서 쿠르드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장투쟁의 종단을 선언한 것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Konrad Hirschler, "Defining the Nation: Kurdish Historiography in Turkey in the 1990s," *Middle Eastern Studies*, Vol. 37, No. 3, pp. 160-161.
- 11 실제로 터키 정부는 1980년부터 1983년 사이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정책 이외에도 1991년 터키어 이외의 모든 언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함으로써 쿠르드족의 정체성 형성 운동에 대한 강경한 제한 정책을 구사했다. Martin van Bruinessen, "Kurds, Turks and the Alevi Revival in Turkey," *Middle East Report*, July-September 1996, p. 7.
- 12 실제로 이러한 터키인들의 반쿠르드, 터키 민족주의의 인식은 선거에서 민족주의행동당(MHP)이라는 보수적인 민족주의정당에 대한 투표로 나타났다. 1999년 선거에서 MHP는 1995년 선거와 달리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 등에서 많은 득표를 얻었다. M. Hakan Yavuz, "The Politics of Fear: The Rise of the Nationalist Action Party (MHP) in Turkey," *MIDDLE EAST JOURNAL*, Vol. 56, No. 2, Spring 2002, pp. 215-216.
- 13 Mustafa Saatci, "Nation-states and ethnic boundaries: modern Turkish identity and Turkish-Kurdish conflict," *Nations and Nationalism* 8 (4), 2002, pp. 559-560.
- 14 Konrad Hirschler, *op. cit.*, pp. 146-147.
- 15 이회수, 위의 글, 95-96쪽.
- 16 이원삼, 위의 글, 124쪽.
- 17 Lisa Hajjar, *op. cit.*, pp. 2-5.